

“신한금융, 포트폴리오 바탕 초격차 종합그룹 만들 것”

조용병 회장, 창립 21주년 기념사
“모든 그룹사, 일류 경쟁력 갖추고
일상 케어하는 생애 금융지원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고객의 일상을 지원하는 금융, 차별적인 문화와 역량 그리고 압도적인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종합금융그룹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본사에서 열린 지주사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그룹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공감과 상생의 금융 생태계’를 신한금융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의 민간 자본 금융지주회사로 시작해 올해 신한EZ손해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

험을 16번째 자회사로 출범시키면서 금융업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완성했다.

조 회장은 신한지주 미래 모습의 기준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경쟁력’, ‘차별적인 문화·역량’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그는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금전

적 이익을 제공했던 과거 역할을 넘어 일상의 모든 영역을 케어하고 생애주기 전체의 금융을 지원하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감성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전략을 바탕으로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제공하는 고객몰입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포트폴리오 경쟁력과 관련해서 “이미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은행과 카드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글로벌, 대면과 비대면 등 균형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초격차의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리부트(R E:boot) 신한”을 지속하며 빠르게, 빠르게, 다르게 일 하는 문화를 굳건하게 정착시켜 나가자”며 “금융을 넘어 디지털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신한만의 역량을 갖추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미래 신한이 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공감과 상생의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ESG 경영을 일상의 기준으로 성장의 가치를 함께 나누며 선한 영향력 전파하자”고 당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케이뱅크 한달간 해외송금 수수료 무료

케이뱅크는 9월 한 달간 해외송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해외계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해외송금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건당 송금 수수료 4천원을 횡수와 금액 제한 없이 한 달 동안 받지 않는다.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송금 이용고객 중 추천해 캐시백도 진행한다. 고객 한 명을 선정해 해외송금 한 금액만큼 환급해준다.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된다. 추천 및 지급일은 다음 달 7일이며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미국, 호주, 유럽 등 18개국에 11개 통화로 현지 계좌정보로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송금 소요 기간은 약 2일에서 최대 5일이다. 모든 통화에서 환율 우대 50%가 적용된다. /이승용 기자

예적금에 뭉치돈... 차주 1인당 이자 연 130만원 늘어

수신·가계대출 금리 9년래 최고

한은, 은행 대출금리 연 4.21%
1년만에 가계이자 27조 늘어

예금금리 2.93%로 0.52% ↑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동반상승
연내 가계대출 금리 5% 전망도

거듭되는 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와 가계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역대급 수신금리에 예적금에 뭉치돈이 몰리고 있는 반면, 은행대출이자도 크게 올라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수신금리 9년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21%로 4%대로 진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4.52%를 기록해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2014년 10월(연 4.1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사



7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9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뉴시스

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7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액은 27조원에 달한다. 차주 1인당 평균 연 이자액이 130만 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2.93%로 전월보다 0.52%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도 가계대출과 같이 2013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4%를 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적금 18종과 예금 8종의 금리를 최대 0.30%p 상향했다. 신한은행은 예·적금 38종의 기본금리를 최대 0.40%p 올렸다. 우리은행도 21개 정기예금과 26개 적금 금리를 최대 0.50%p 인상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30일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최대 0.4%p 올렸다.

3%대를 웃도는 예금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경남은행 ‘2022 BNK 야구사랑 정기예금’(연 최고 3.60%), 기업은행 ‘IBK 성공의 법칙 예금’(연 최고 3.72%),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연 최고 3.60%), Sh수협은행 ‘Sh플러스알파예금’(연 최고 3.50%) 등이 3%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금리가 오르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월 25일 기준 718조8970억원으로 7월 말보다 6조447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도 38조1167억원에서 38조7838억원으로 6671억원 늘어났다.

◆예·적금 금리가 대출금리 밀어 올려
문제는 예·적금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려왔는데,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산출 근거가 되는 코픽스(COPIX)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하나은행 4~6일 프라이빗 아트페어

하나은행이 ‘하나 프라이빗 아트페어-대화의순간 (#2 The Moment of Dialogue)’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아트 페어는 오는 4~6일까지 삼성동 Place1 빌딩 내 CLUB1 PB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아트 컬렉션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열린다.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 KIAF)가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FRIEZ E)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아트 페어 기간에 맞췄다. 지난달에 개최한 ‘하나 프라이빗 아트 페어-아트 컬렉션 쇼(#1 Art Collection Show)’에 이은 두 번째 아트 페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BNK부산은행, 금융 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 수수료 면제

BNK부산은행은 1일 장애인 및 금융소외 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구송금 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의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한편 부산은행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체터민 등에 대해서도 각종 금융서비스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은행 부실채권 8개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

금감원, 6월말 0.41%로 0.03%p ↓
기업여신 0.55%, 가계여신 0.17%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6월 말 0.71%, 지난해 6월 말 0.54%로 부실채

권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분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여신이 0.55%로 전분기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가계여신은 0.17%, 신용카드채권은 0.87%으로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가계여신 중 기타신용대출은 0.30%로 유일하게 0.02%p 상승했다.

2분기 중 새롭게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7% 증가했다. 액수로 보면 5000억

원 늘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신규부실이 큰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같은 기간 정리한 부실채권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매각(1조3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8000억원) ▲여신 정상화(6000억원) ▲출자전환(1000억원) 순이다.

총 부실채권은 10조3000억원으로 5.1%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8조6000

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3.8%를 차지하며 가계여신(1조5000억원), 신용카드채권(1000억원) 순이다.

6월 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5.6%로 전분기 말 대비 24.0%p 상승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정부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